◆ 8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8월 12일(수) 12:00부터 보도

보도자료

2026. 8. 11.(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문의 : ☎ 02-6919-3901 고등교육연구소장 : 강낙원 / 정책연구팀장 : 김정희 / 담당 : 조혜진 선임연구원

대교협, 대학 재정 다각화와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제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우리나라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 대교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학이 인재 육성, 연구개발, 지역 혁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추 기관인 만큼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소액 기부 활성화를 통한 분산형 재원 구조 형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특정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으로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 설계도 제안했다.

- 이는 장학금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는 약 9.6% 정도로 추정되었고, 연간 약 1,600억원(1개교 당 약 8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0.9%p(1.6%→2.5%)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